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짧은 말씀 묵상집 (15)]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가장 간교한 뱀" "심히 간교한 자"

하와를 미혹한 "가장 간교한 뱀"(창 3:1)과 같은 "심히 간교한 자" 요나답은  
다윗의 아들 암논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일ियो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말았어야 할 일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되  
억지로 동침한 후 그녀를 "심히 미워"하되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습니다  
(삼하 13:1-15).

## 가장 훌륭한 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욥 1:3)

## 감사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대하 20:20-22).

##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시 50:23).

그러나 불평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 행위를 옳게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 거미줄 같은 것뿐인데 ...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습니다(욘 8:13-14).

## 건져 구원하심은 ...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도와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입니다(시 37:40).

##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슌 3: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 사탄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신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여주셨고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4 절).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롬 4:25).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으로 말미암아(계 19:13)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슌 3:3-4) 우리에게 "흰옷"(계 7:13)  
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19:8, 14)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롬 8:33-34)

## 경건한 주님의 종은 ...

경건한 주님의 종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시 86:2, 11).

## 경고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우리 자신의 숨은 허물을 깨달아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를 회개하므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시 19:11-13).

**고난이 없는 악인의 형통함보다는  
고난이 있는 의인의 형통함이 낫습니다.**

우리가 질투할만한 "악인의 형통함"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나 "고통"이 없기에 교만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형통함에는  
그 고난이나 재앙이나 고통이 있기에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 73:3-6, 14, 16; 히 5:8).

**고통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내가 "재앙을 만날 때 어찌 도와 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습니다.  
"고통의 물결은 끊임없이 나에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습니다(욘 30:20, 24, 26-27).

##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 ...?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니 ... ㅠ  
(대하 28:22)

## 교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왕상 11:2).

## 교회 목사님 한 사람이 ...

교회 목사님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노하시사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왕상 21:20-22).

## 교회 세우는 사역자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마 16:18)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은 서로를 돕는 자들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자들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대상 28:21).

###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 자매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라(느 4:10-14).

###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에워싼 큰 역경과 위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깊이 깨달게 됩니다 (시 3:6, 8; 욘 2:9).

##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99.9999% 하나님 + 0.0001 우리 사람(행위/선행/노력)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중심의 설교를 들으면서 든 생각)

##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시 3:6-8).

##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대하 12:14).

## "그 저주 때문에 ..."

시므이는 계속해서 도망가는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물론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흘린 것을 말한 것이지만 저는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한 것을 덮고자 그녀의 남편이요 다윗의 충성된 군인인  
우리아의 피를 흘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화를 자초하되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참고: 삼하 12:9-12).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자기를 저주하라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스루야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삼하 16:5-12).

하나님께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그 주님의 은혜란 ...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시 86:3, 5, 7, 13, 16).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대적하"며 "나를 책망"합니다.

그들은 내 "원수"가 아니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므로

내 "짐을 여호와께" 기도로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 55:2, 4, 12-14, 16-18, 22).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부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부부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아 8:6; 마 19:6; 22:39; 롬 8:35; 엡 5:21-31).

## 기도와 행동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후새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였습니다(삼하 15:31-37).

## 기도의 우선순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시 86:11).

## 나 자신조차도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 ...

나 자신도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  
내 영혼은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시 18:1; 42:5, 11, 43:5).

## 나귀(짐승)처럼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있나요?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본 "나귀"를  
발람은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민 22:23, 29).  
나귀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에게 채찍으로 세 번이나 맞으면서까지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했었지만(23-27 절)  
발람은 일생 동안 자기를 충성되이 섬기고 있었던(30 절) 나귀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29 절).  
발람은 자기 나귀(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짐승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마 21:7-10).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발람의 나귀처럼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귀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신(사 53:7, 현대인의 성경)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발람이 탄 나귀와 예수님이 타신 나귀처럼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있나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아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였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시 71:5, 6, 14, 15, 17, 18).

##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마태복음 6:10).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님의 말씀(이중계명)의 권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나를 심히 미워하는 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속일 때 ...

나를 심히 미워하는 나의 원수들이 까닭 없이 나를 속일 때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님은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며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시 25:2-5, 19).

##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나요?

전지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시 139:1-4).

편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7-8; 마 1:23).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시 139:17-18; 요 3:16; 롬 8:32).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

나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사장에 모래알보다 더 많을 정도로 셀 수가 없습니다(시편 139:17-18).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은 몇 개나 될까요?

## 나의 간절한 기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혀에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하 23:2).

## 나의 계획보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

하나님,  
나의 계획을 폐하시고 나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만 대대에 이르게 하소서  
(시 33:10, 11).

## 나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사함 받기 원하는 나의 허물과 가려지기 원하는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나의 본능이지만 주님께서서는 나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케 하시므로 내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시 32:1, 4, 5).

## "나의 기도는 정결"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이면 고통일수록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해야 합니다(욘 16:17).

## 나의 마음이 기쁜 이유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므로 나의 마음이 기쁜 이유는

주님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시 16:8-9, 11).

## 나의 모든 소원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같"을 때,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고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나의 모든 소원은 주 앞에 있"으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습니다(시 38:1, 3-4, 8-9).

## 나의 복, 나의 모든 즐거움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시 16:2-3).

## 나의 소망은 ...

나 자신에게는 소망할 근거가 전혀 없기에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시 39:7).

## 나의 죄악 때문에 ...

나의 죄악 때문에 비록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케 하시는 것입니다

(시 31:9, 10, 12, 14).

##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 23:6).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시 86:5).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선하십니다(롬 12:2).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8:28).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시므로(느 2:8, 18)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합니다(시 34:8).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23:6).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16).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19 절; 롬 8:29; 엡 1:4).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엡 1:4)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자(요 3:16)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갈 4:4)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롬 5:8).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시 23:6).

## 낙심하며 불안해 할 때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송할 것입니다(시 42:1-5).

##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실 때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시지만  
그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 66:10-11; 68:19).

##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감사한 혀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감사를 행하는 혀는  
악과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  
(시 52:2-4).

## "낮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낮선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내 눈으로" 살아 계신 "나의 대속자" "보기를  
낮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욘 19:13, 25, 27).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조롱하는 나의 친구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욘 16:20; 17:2).

##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

내 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시 4:1, 3, 5, 7).

## **내 말씀 묵상의 글이 ...**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말씀 묵상의 글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기원합니다  
(시 19:14).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소서.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시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소서  
(시편 54:1, 4, 7).

## 내 집과 주님의 교회를 ...

주님께서 내 집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전해 주시길 ...

(삼하 7:16)

## 내 희망이 나무 뽑듯 뽑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신 것 같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는 것 같고,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는 것 같을지라도(욘 19:8-10)

나는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시 42:5, 11; 43:5).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욘 19:26).

## '내가 너희만 못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쓸모없는 위로자들

"쓸모없는 의원"과 같은 친구들은

고통으로 인해 '병든' 우리를 위로한답시고 말하지만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만 못하다'는 느낌과 생각을 들게 만들 뿐입니다

(욘 12:3; 13:2, 4).

## 내가 여전히 태연할 수 있는 것은 ...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여전히 태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시 27:1, 3).

##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대적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시 3:1, 5; 4:8).

##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항상 모심이요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시 16:8).

##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시 16:8-9).

## 내가 흔들릴 때에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해야 하는 것일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고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실 것일까?

"내가 흔들릴 때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시 13 편).

##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지만 ...

"내가 받은 재앙"으로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나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올 줄을 믿습니다(욥 23:2, 10).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부과 존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대상 29:11-12).

**똑똑히 볼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의인은  
악인이 끊어질 때에 똑똑히 볼 것입니다(시 37:34).

## "마라"를 "나오미"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라"(괴로움)를 "나오미"(희락)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 1:19-20).

##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는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물리치십니다(시 66:16, 18-20).

## 마음이 겸손한 자가 구하는 것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 구하지만(사울 왕, 삼상 15:30; 참고: 왕상 3:11),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자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솔로몬 왕, 왕상 3:7-11).

## 마음이 교만하면 ...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대하 32:25).

## 마음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

마음이 교만한 자는 스스로 영광을 삼지만(왕하 14:10)

마음이 겸손한 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시 115:1).

##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구원의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시 7:9-10).

##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왕하 10:15-16).

## 만사형통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은 만사형통 합니다(시 1:1-3).

##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롬 8:31-35, 현대인의 성경)

## 많은 것이 죄를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지혜만 컸던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가지지 말았어야 할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와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 17:16-17; 왕상 10:23).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많은 지혜로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와 많은 은금의 유혹과 싸워 이겼어야 했는데 나이가 "많을 때" 그의 많은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왕상 11:4).

##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증한 죄악을 없애고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여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대하 15:8).

## 망할 것입니다.

바람의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시 1:1, 4, 6).

##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롬 8:26-28).

## 모든 도움의 손길을 차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의 손길을 막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신앙 고백케 하십니다

(시 121:1-2).

## 목사의 직분과 목사에 대한 언약?

지금 나는 목사의 직분을 더럽히고

목사에 대한 언약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느헤미야 13 장 29 절을 묵상하면서)

## 목사인 나는 ...

목사인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해야지  
다른 거짓 목사들이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고 나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왕상 22:13-14).

## 목자의 기도?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부와 재물과 영광을 위해서 구해서는 아니 됩니다(대하 1:10-11).

##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라!

"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교회를 "살펴본 후에"  
"후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당한 곤경"과  
"황폐"한 교회를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탄의 시험 든 자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느 2:12-20).

## 미끄러질 뻔 한 의인과 미끄러운 곳에 있는 악인들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 한 자를 질투"하므로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시 73:1-3, 17-18).

"걸음이 미끄러질 뻔 했"던 "마음이 정결한 자"가  
주님께서 참으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 미래의 위기에서의 구원을 위한 현재의 위기에서의 구원?

하나님께서서는 미래 우리에게 닥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현재 위기에 닥친 우리 이웃을 건지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 2:19-23).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히 12:2; 시 31:24).

##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물을 흠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흠으셨습니다(삼하 5:20).

**반대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 들여 주님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재건한다 "항을 듣고 크게 분노하"는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예배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별 볼이 없는 자원으로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는가,"  
교회에 틈이 많아서 "곧 무너지리라"고 말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세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곤 우리는 "마음 들여 일을" 합니다(느 4:1-6).

##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6:1-15 & 마 16:18)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왕하 10:10).

## 보상에 눈이 먼 친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위로 한답시고 와서  
보상을 얻으려고 오히려 그 친구를 비난한다면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욘 17:5).

보상에 눈이 먼 친구보다 사랑에 눈이 먼 친구가 낫습니다.

## 복 받은 사람들

지혜로운 지도자를 쫓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항상 그 지혜로운 지도자에게서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왕상 10:7-8).

##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 23:1; 34:9-10).

##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은 ...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결말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요(시 37:2; 73:17-20)  
또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37:4).

## 불평의 소리 듣기?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원망으로 기도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셨는데  
(민 11:12, 20)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인 나는 성도님의 불평의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니 ... ㅠㅠ

##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총만하지만 ...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지고 섬기는 나를 비방하므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기에 그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총만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기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며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 69:4, 7, 8, 13, 19, 20).

##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때에 ...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 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리 것이"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로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은  
비록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끊어져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고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임을 믿고  
순결하고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시 12 편).

## 빠져리게 느끼는 나의 무능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가 당면한 큰 위기의 역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빠져리게 느끼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큰 위기의 역경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것을 깨닫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대하 20:12-21).

###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위를 높이 올림을 받았을 때 모르드개가 자기에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여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에 3:1-6). 그러한 하만이 왕후 에스더의 초청을 받아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한번 참여하고 두 번째 잔치에도 초청을 받은 후 "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와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지만 "그는 그 분노를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5:1-10).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멸하고자 할 정도로 매우 분노하였던 하만이 어떻게 그 큰 분노를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 원인은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과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11-12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유대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했습니다(13 절). 그 정도로 하만은 높이 올림을 받고 싶어 했고(3:2)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5:11).

그 결과는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14 절) 자기가 매달림을 받았습니다(7:9-10).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 18:12).

## 사랑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 있기에 승리의 확신도 있습니다(롬 8:35, 37, 39).

##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 사랑하는 나의 세 자녀들이 ...

사랑하는 나의 세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지켜 행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기원합니다(참고: 왕상 3:3).

##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 통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통혼하고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왕상 11:2).

## 사랑해야 할 자와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자?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은 자기에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참 선지자 미가야를 미워하였는데(대하 18:7),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 아합 왕을 사랑하여(19:2)  
아합 왕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18:1).

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는 참 목자를 사랑해야 하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 사탄은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바꾸어놓고 있습니다(롬 1:23, 25, 26).  
사탄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있으며(요일 3:15, 23)  
또한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일 2:16, 현대인의 성경).

## 사탄의 "까닭 없이"와 "틀림없이"

사탄은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칩니다.

그리하면 사탄은 우리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한다고 말합니다(욘 1:9-11).

##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간구와 사랑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강력한 기도로 간구하고 계시며,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강력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새로운 존재"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은(고후 5:17, 현대인의 성경)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계 21:1).

## 생사의 갈림길에서 ...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 한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삼하 15:25, 26),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은(행 13:22)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겸손히 말합니다(삼하 15:26).

### "섞인" 모든 것을 "모두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섞인" 모든 것을 "모두 분리"해야 합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섞인" 믿음 안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불순한 거짓된 '믿음'을 분리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섞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죄악 된 '사랑'을 분리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섞인" 소망 안에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님 외에  
모든 세상 적이고 보이는 순간적인 가짜 '소망'을 분리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섞인" 성품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거짓된 '진실'과 거짓된 '겸손' 등을 분리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섞인" 마음의 동기 안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자기의 영광을 들어내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불순한 동기를 분리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3 장 3 절을 묵상하면서)

## 섞인 신앙의 유산?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남기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은 순수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다른 민족의 풍속대로 그들의 신들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제사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풍속대로 돈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을 경외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왕하 17:27-41).

## "성경대로" 간구하십시오.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히 5:7; 롬 8:34). 간구하고 계시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필요를 다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롬 8:26-2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되 “성경대로” 간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원로 목사님의 수요기도회 설교를 요약하면서).

## 성령님은 "친히" ...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롬 8:16, 26, 27).

## 성전 건축

솔로몬 왕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그 시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을 때였습니다(왕상 5:4-5).

## 세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저의 세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지혜의 소문"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왕상 4:29, 34).

## 솔로몬의 천 마리 번제 보다 ...

솔로몬 왕은 1,000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지만(대하 1:6)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3,000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대상 29:21).

## 수많은 거짓 목사들의 거짓 복음

거짓말 하는 영의 꾀를 받은 수많은 거짓 목사들은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거짓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짓된 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왕상 22:1-23)

## 수백 명의 거짓 위로자보다 ...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는 나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위로자 수십 명보다 나에게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참된 책망하는 한 사람이 낫습니다(왕상 22:8-13).

## 순금보다 더 사모하십시오.

영혼을 소성시키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교훈,  
눈을 밝게 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  
영원까지 이르는 청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 하나님의 법도,  
우리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시 19:7-10).

## 승리의 비결과 확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과  
어느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입니다(롬 8:35, 37-39).

## 실제와 결과가 다른 이유?

실제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낫았는데  
결과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삼하 17:14).

우리의 삶의 계획에 있어서 실제와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리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 실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의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시 37:31).

## “심한 고통”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은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것인지 이해하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심한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 73:1-16).

그 "심한 고통"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갑자기 황폐"되는 것이요 "전멸"입니다(17-19 절).

## "심히"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이고, 암논은 다말을 "심히" 미워했으며,  
다윗은 "심히"노했습니다(삼하 13:3, 15, 21).

우리는 어리석은 암논처럼 심히 간교한 자의 말을 듣지 말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강제로 동침한 후 심히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암논과 다말의 아버지 다윗처럼 심히 노하기만 하고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고  
다말을 위로도 하지 않는 이러한 아버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심히 간교한 자" "요나답"

"요나답",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이 사람은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삼하 13:3).

그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1 절)의 친구로서(3 절)

암논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사랑하되(1 절)

그녀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녀로 인해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된 것을  
알고(2 절) 암논에게 간교한 조언을 하므로(5 절) 결국 암논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하여(12 절) "억지로" 다말과 동침했습니다(14 절).

그리했던 요나답은 "만 이 년 후에"(23 절)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계획을 세워

암논만 죽였는데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30 절)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32 절).

결국 심히 간교한 요나답으로 인해 암논은 다말을 억지도 동침하였고 그 일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간음죄와 살인죄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버지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그의 두 아들인 암논과 압살롬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옆에는 아직도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 있었습니다(32 절).

## 아골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괴로움의 골짜기)를(수 7:26)

"브라가 골짜기"(송축의 골짜기)로 만드십니다(대하 20:26).

## 아내가 매우 사랑스러우면 ...

아내가 매우 사랑스러우면 그녀의 소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에 5:2-3)

##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

우리는 배우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옹처럼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욘 2:3, 9, 13).

## 악을 거절할 능력도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절할 능력도 없습니다(시 36:1, 4; 잠 8:13).

##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  
모든 소유물(식구, 물질 등등)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할 수밖에 없습니다(욘 1:21).

##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려고 왔다는 친구들이 내 입장에 있지 못하면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으되 나에게 헛된 말을 끝없이 하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고 내 근심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욘기 16:2-5).

##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16).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3:23).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44).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말 1:3; 롬 9:13).

또한 성경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 14:26).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또한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심한 친구를 어떻게 위문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있으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나요?

(욘 2:11-13; 롬 12:15)

## 어떻게 친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욘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욘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습니다(욘기 1:5).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18-19 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욘의 친구 중 빌닷은 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8:4)

##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자가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왕은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을 때에는

모압에 거주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몰록과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습니다  
(왕상 11:4, 7, 8).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자가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는 자가 되었을까요?

## 어버이 날 짧은 묵상

우리는 부모로서 신앙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말씀 인격화 되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자녀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히 11:4).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시 71:21).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향한 사랑을 더욱 창대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소망을 더욱 창대하게 하시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의 세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교훈케 하셨습니다(시 71:17).  
그 교훈이란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그 찬송가 후렴을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고 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영, 딜런, 예리, 예은이에게 교훈하신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써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은 세 자녀들을 사랑하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딜런, 예리, 예은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후에도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이가  
저를 기억(추모)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모태에서부터 붙들어주시사(시 71:6)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 누리게 하시사  
그/녀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건져(구원해) 주시므로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20, 21 절).

## 어쩌면 그 때가 ...?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고 싶을 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라고 말하며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라고 말할 때,  
어쩌면 그 때가 "사람이 무엇이기예 주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아침마다 살피시며 매순간마다 시험"하시는지,  
"주께서는 어쩌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지,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일 수도 ...  
(욘 7:15-19, 현대인의 성경)

##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병이 없"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으로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포로로 잡혀 오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을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느 1:2-3; 2:2).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므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모해야 할 것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2:8:18).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20 절).

##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진실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진실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시 31:14, 23, 24).

##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시 89:8)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교회와 "언약"을 맺으시고(3 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며(21 절)

주님의 능력의 팔로(13 절) 우리를 힘 있게 하시며(21 절)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시사(19 절)

주님의 교회로 "건설"하고 계시오니(11 절)

주님의 종인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전하며(1 절; 참고: 2, 5, 24, 33, 49)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52 절).

##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두려워한 다윗

다윗은 자기의 손을 들어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에(삼상 24:6, 10; 26:9, 11)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자기 손에 두 번이나 넘기신 것을 알고도(24:10; 26:8, 23)  
그를 해하지 않았습시다(24:10, 12; 26:23).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학대하고(24:17) 해하려는(26:21) 사울 왕을 아끼고(24:10)  
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습시다(26:21, 24).  
그런데 한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삼하 1:13)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울 왕이 자기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죽이라"고 했고  
또한 그 아말렉 청년이 보기에 "살 수 없는 줄을 ... 알고" 사울 왕을 죽였습시다(6-10 절).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시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14, 16).  
결국 그 아말렉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시다(15 절).

## 역전 중에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굶은 배움을 입고 재에 누웠던 무수한 유대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게 되었습시다  
(에 4:3; 8:16).

##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만은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그녀의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는 일을 "심중에 품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개를 존귀하게 하였고,  
또한 에스더와 그녀의 민족이 아니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 6:6, 10; 7:5, 10; 8:1-9:1)

## 연약함 속에 경험하는 강함

최악 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 큰 고통과 위기를 겪으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마땅히 간구 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  
직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로마서 8 장 26 절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약할 때 강함 주시는(고후 12:10)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 장 26 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5 편).

## 영적 면역성과 영적 근육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행 6:4)  
영적 면역성(spiritual immunity)과 영적 근육(spiritual muscle)을 길러야  
죄악의 바이러스와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이나 ...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께 "높이 들림을 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대상 14:2).

## 오직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 및 "내 친척들도" "내 상처를 멀리하고" 있을 때,  
"내 생명을 찾는 자"와 "나를 해하려는 자가" "울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밀 때,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시 38:11-15).

## 오직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

오직 나만 남아서 홀로 유별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일 때에  
큰 역경과 위협 속에서 낙망과 탈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남겨두시사 나 홀로가 아님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왕상 19:1-18).

##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므로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시 52:2-4, 7).

##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대상 29:15).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롬 12:12).

우리는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딤후 6:17).

그 이유는 우리의 희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롬 15:13).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시 71:4).

##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신앙?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은 신뢰안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대하 20:20).

##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요일 2:17).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3:14, 현대인의 성경) 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 오히려 악을 만들뿐입니다.

분노를 그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불평할 때에는 악을 만들뿐입니다(시 37:8).

##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 때 자신은 유대인임을 알렸을까요?

그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이 다 멸함을 당하는 위기를 맞지 않았나요?

(에 3:1-6)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모르드개는 에스더로 하여금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2:10, 20).

그러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대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있었을 때에야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말했습니다(4:8).

## 왜 부부의 사랑을 끊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데 부부의 사랑은 끊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마 22:39; 롬 8:35).

##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내 종 욘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욘에게 왜 그리 극심한 고통들이 임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욘의 생명만 빼고 다 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욘기 1-2 장)

## 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징계가 더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내가 미련해서?  
(왕상 11:2)

## 외롭고 괴로울 때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근심이 많을 때 고난에서 끌어내시는 주님의 건지심을 구하며,  
곤고하고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길 기원합니다(시 25:16-18).

## 옳과 같은 신앙인은 ...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울 줄 믿는 옳과 같은 신앙인은  
주님의 뜻이 일정함과 주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심을 믿음으로  
“나는 그분 앞에서 떨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욥 23:10-15).

## 용서받지 못한 자의 반역

아버지 다윗에게 진심을 용서를 받지 못하므로  
아버지의 얼굴을 5년 동안이나(삼상 13:38; 14:23-24, 28) 보지 못했던 아들 압살롬은  
"반역하는 일"(15:12)을 꾸며서(11 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 "인심"(13 절)]을 훔치므로(6 절)  
결국 아버지 다윗은 가족과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14-18 절).  
전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도망하여" 그술로 갔었는데(13:38)  
이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하였습니다(15:14).

##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3년이나 마음이 간절하였던 아버지 다윗 왕(삼하 13:38-39),  
그런데 왜 다윗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압살롬으로 하여금 2년 동안이나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명했을까요?(14:23-24, 28)  
어떻게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였던 마음이 그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한 것일까요? 제 생각엔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사랑(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사랑(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사랑이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롬 8:29-30, 35, 38-39).

##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나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삼하 22:19-20).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심과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 우리가 당면한 큰 어려움 ...

우리가 당면한 이 큰 어려움과 큰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대하 20:12).

##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물질 등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하 16:7-9).

##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시 46:1, 3).

## 우리는 부모로서 ...

우리는 부모로서 신앙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말씀 인격화 되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자녀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히 11:4).

##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또한 알고 있습니다(롬 8:28, 37).

##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낮추시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대하 28:19).

그러나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또 높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왕상 11:9, 14).

##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에 죄를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사탄과 모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 장).

##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일평생 당하는 죽음의 위험에  
육신의 눈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죽음의 위험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눈으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롬 8:36-37)

##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기에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시 31:7).

‘=

##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실 것입니다(시 37:5, 23).

##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나의 "그들"이 되십니다(시 121:1, 2, 5).

그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는데 자기를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시므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욘 4:6).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저 같은 자에게도 "그들"을 지게 하시사  
저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위축되지 않았고 우리 걸음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 44:17-18).

## 우리의 모욕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그 누구에게 당한 우리의 모욕을 갚아 주사  
우리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십니다(삼상 25:39).

##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죄악 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인 천국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히 11:15-16).

##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므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십니다(시 86:3-5).

## 우리의 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 합니다  
(시 52:7, 8).

## 위대한 이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의 뜻(마음대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려다가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삼하 7:9).

## 위험한 두 사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권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합하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왕상 21:1-16).

## 유익한 고난과 상함?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시므로  
우리가 피차 상한 바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고난과 상함은 유익한 것입니다(대하 15:4, 6).

## 육신의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진심을 용서를 받지 못했던 아들 압살롬,  
그는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5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습니다  
[도망하여 3년은 그술에서(삼하 13:38) +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2년(14:23-24, 28)].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보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29-32 절).  
그가 요압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32 절).  
압살롬의 심정은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의 얼굴도 2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도망가 3년 동안 그술에서  
살았던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면서 가족이 서로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것보다  
육신의 거리를 두고 살면서 마음으로 서로 간절히 그리워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13:38-39).

## 의미 없는 숫자, 의미 있는 순종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에 의미를 두십니다.

심히 큰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므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므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대하 24:20, 24).

##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 보다 낫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 보다 낫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므로

넘어지나 아주 옆드러지지 아니하지만

악인의 팔은 부러지며 연기가 되어 멸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시 37:16, 17, 20, 24).

## 이 또한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위가 높이 올림을 받은 하만,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므로 매우 노했던 하만이

결국에 가서는 모르드개의 사촌인 하나님께 높이 올림을 받은 왕후 에스더가 앉은

결상 위에 옆드려서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 또한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 3:1-5; 7:7-8)

##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육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그리도 감사하고 기쁘다면,  
하물며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엡 2:1)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로 살린바 되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 이 큰 역경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큰 역경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큰 역경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대하 20:15, 17).

## 이러한 사람들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하고자(딤후 4:3, 현대인의 성경)  
자기에게 좋게 말하는(대하 18:12) '목사'를 '참 목사'라고 믿고  
그 가짜 목사를 추종하고 그 거짓 목사에게 맹종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며

그의 입술을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시 21:1-2).

### "인과응보적 신앙관"?

"인과응보적 신앙관", 의인의 고난은 인정하지 않고 죄인에게만 고난이 임한다는 신앙관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인을 정죄하고 책망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난도 허락하셔서 그 의인을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욥기"서의 해설을 읽으면서)

### 인생의 쓴 맛을 보고 있을 때 ...

인생의 쓴 맛을 보고 있을 때 나오미에게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굳게 결심함으로 말한 며느리 모압 여인 룓이 있었고(룻 1:16-18),

다윗 왕에게는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라고 말한

블레셋 족속 출신 잇대 장관이 있었습니다(삼하 15:21).

우리가 인생의 쓴 맛을 보고 있을 때 룓이나 잇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 인생의 위기 때 ...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삼하 15:25-26)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은 2:4) 다시금 주님께서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삼하 15:25).

## "인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조차 "인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것 보다 '인간' 됨됨조차도 안돼서 일수도 ...

(사무엘하 15 장 13 절을 다시금 읽다가 든 생각)

## 일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도를 가르침 받으며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시 86:11-12).

## 일어나 바로 섭시다.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며 앞드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시 20:7-8).

## 자기 자신을 ...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가 되기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는 명철한 가난한 자가 돼야 합니다(잠 28:11).

## 자기의 생명과 죽음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형편 때에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간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죽음'을 구하였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왕상 19:2-4).

##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면 ...

교인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면  
목사님을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삼상 30:6).

## 자녀를 통해서 ...?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두 개가 있습니다:

(1) 요한복음 6 장 1-15 절 말씀(저 개인에게)과 (2)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승리장로교회).

(1)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물고기 2 마리와 떡 5 덩어리 밖에 안 되는 제 자신을 주님께 받칠 때에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사 남자만 5,000 명을 먹이신다는 약속이고

(무슨 뜻인지 몰라 20 년 넘게 말씀과 씨름을 했음).

조금 깨닫게 된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나눌 때에

주님께서 그 묵상 말씀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같음),

(2)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는

(a) 주님의 교회요 (b)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열왕기상 8 장 15 절을 읽다가 들었습니다.

##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보다 자녀를 '용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삼하 13:39; 14:24, 28).

### "작은 구름" "큰 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기도 응답의 싸인이 없다가  
일곱 번째서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이 결국에 가서는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왕상 18:43-45).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큰 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작은 구름"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비"를 내리시기 전에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무덤으로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노역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시 30:1-3, 5).

##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대하 17:1-6).

## 절망 가운데 경험하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

큰 절망 가운데 경험하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시 71:5).

## 점점 힘을 얻습니다.

"손이 깨끗한" "의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꾸준히 가"므로 "점점 힘을 얻"습니다 (욘 17:9).

##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한 의인들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직한 말씀을 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드립니다

(시 33:1, 2, 4, 5, 9).

## 조금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대하 12:1) 하나님을 버려서(5 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2 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5 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

우리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십니다(5 절).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경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6 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경비함을 보시고

우리를 총만히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조금 구원"하십니다(7 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진노를 쏟지 않으십니다(7 절).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릴 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을 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대하 18:1)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음).

그 일로 인해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19:2).

우리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도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 좀 뼈저리게 느끼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라도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음과

나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욘 6:13).

그래야만 우리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시 121:2).

##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듯이(삼하 18:27),  
복음(기쁜 소식)의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빌 1:2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죄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롬 14:23).

## 주님,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주님,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어느 때에나 죽고  
우리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고 악담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다정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비방하는 말을 꾸며 나가서는 그것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대해서 서로 수군거리고 우리를 해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뢰하여 우리의 떡을 나눠 먹던 우리의 가까운 친구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을 보응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시 41 편).

##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되 ...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되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에 타고 가게 하셨"지만  
마침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시 66:10-12).

##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

우리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같이 굳게 세움을 받은 것 같다가도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시 30:6-7).

##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는 승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약한 자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대하 14:11).

## 주님의 가난한 자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주의 판단력"을 가진 왕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므로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압박하는 자를 꺾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를 것입니다  
(시 72:1, 2, 4, 7, 12, 13).

##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로 인해  
비록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므로 나는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시 70:2, 4-5).

##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은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땅을 차지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은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시 37:9-11, 22).

##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판단력을 목사인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시 72:1-3).

## 주야로 방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매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는 교회 대적자들은 "다 함께 꺾하"여 교회를 "치고" "요란하게"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영적)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해야 합니다(느 4:7-9).

##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환난 중에 있"으므로 "나는 가난하고 슬"플 때 주님이 아시는 "나의 우매함"을 나 또한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를 나 또한 깨닫게 되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시 69:5-7, 17, 29, 32).

##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할 말?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왕상 2:1-3). 나는 다윗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때 가서 성령님께서 내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지만 어쩌면 그 할 말 중에 하나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태어나서 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된다.

##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성경대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고  
성경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 나셨기 때문입니다(롬 8:35; 고전 15:3-4; 요일 1:1-2; 3:16).

##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사  
우리로 하여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케 하십니다(시 51:5, 6, 10, 17).

##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대상 29:14).

##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롬 8:34).

제 생각엔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consummation)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Already) 구원을 받았지만(요한복음 19:30),  
'아직도'(Not-yet)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요한계시록 21:6).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초림)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재림).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길 기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로마서 8:30).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간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엡 5:27).

또한 제 생각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교회)가 하나(unity)가 되길 간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요 17:11, 21, 22).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길 간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지만(에베소서 4:3) 아직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하나 됨을 위하여 간구하실 것입니다.

## "지혜 있는 사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왕상 2:9).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사랑하는 딸 예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심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 진실 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진실 된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죄가 들춰질까 봐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거짓된 위로의 말 듣기를 좋아하면서도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실 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왕상 22:14-16).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잠 8:13) 우리는 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왕하 17:32-33).

##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과 느낌이 드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다는 생각과 느낌이 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므로  
주님께 건짐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시 22:1, 3, 4, 5, 11).

##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할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마땅히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시 33:1).

## 참 목사님과 가짜 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는 목사님은 참 목사이지만(대하 18:18)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하고자  
(딤후 4:3, 현대인의 성경) 다른 가짜 목사들처럼 "좋게 말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대하 18:12).

##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 가면 알아갈 수록 우리는 끝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롬 8:18, 25, 37, 39; 엡 3:18, 현대인의 성경).

## 친구로부터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낙심한 자"

친구로부터도 동정을 받지 못하는 "낙심한 자",  
오히려 그 친구는 낙심한 나를 책망하고 나의 말을 꾸짖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나는 기대가 무너져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욘 6:14, 20, 25, 26).

## 칼 같이 찌르는 비방을 들을 때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비방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시 42:9-10).

## 크게 존경 받고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크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들을 안위합니다(에 10:3).

## 탐심으로 가득 찬 지도자

한 시민의 소유를 원하는 탐심으로 가득 찬 한 나라의 지도자(부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권모술수를 써서 그 시민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민의 소유를 강탈해 갑니다(왕상 21:1-16).

## 틀림없이 욕할 줄 알았는데 ...

사탄은 욱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욱이 주님을 향하여 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욱은 이 모든 일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옳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다"라고 말했습니다(욱 1:11, 20-22).

## 평안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에 9:22).

##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요이 1:4; 요삼 1:3, 4).

##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꾀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시 37:1-2, 7).

##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때에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대하 27:6).

##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남편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춰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심중에 업신여기고 방탕한 자로 보고 염치없는

사람으로 볼지라도 말입니다(삼하 6:16-22).

##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하는데 ...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피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합니다(삼하 22:21-24).

##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성도는 형통할 것입니다(대하 20:20).

##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고 계시기에 ...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의 생명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길 기원합니다(삼상 26:21, 24).

##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리한다면 죄가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입니다(삼상 26:9-11).

## 하나님께서 금하시기에 ...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기에  
아무리 아합 왕이 왕궁에서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다 할지라도,  
또는 그 포도원의 값을 돈으로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왕상 21:1-4).

나봇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면 지위가 높은 권력이 엄청나게 세든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금하시는 것을 하게 만들고자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왕상 11:1-4).

##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의를 사랑하는 성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의를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시 37:27-28).

##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지라도 ...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욘 6:9-10).

##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시 71:21).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향한 사랑을 더욱 창대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소망을 더욱 창대하게 하시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의 세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교훈케 하셨습니다(시 71:17).  
그 교훈이란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그 찬송가 후렴을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고 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영, 딜런, 예리, 예은이에게 교훈하신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써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은 세 자녀들을 사랑하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딜런, 예리, 예은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후에도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이가 저를 기억(추모)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사람은 ...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사람은 점점 강성해 갑니다(삼하 3:1; 5:10).

## 하나님은 나를 익히 알고 계시건만 ...

하나님은 나를 익히 알고 계시는데(시 139:3)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가?

##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시 28:13-14).

## 하나님을 소망하는 온유한 자들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할 것입니다  
(시 37:9-11).

##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돈에 두고 그 돈을 내가 의뢰하였다면,  
만일 내가 재산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있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그 돈과 슬며시 유혹되어 그 돈을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할 정도로 숭배했다면,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배반한 셈입니다(욘 31:24-28).

##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로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제 자녀를 칭송하기보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왕상 5:7).

##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대하 15:15).

##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욥과 같은 성도야 말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탄에게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욥 1:6-22).

##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합니다(왕하 10:30).

##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화살처럼 나를 찌를 때에 ...

내가 내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화살처럼 나를 찌르고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심히 누르시므로  
내 마음 깊은 속에 평안함이 없고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같으므로  
결국 나는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슬퍼하며  
주님께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아뢰므로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시 32:1-5; 38:2-4, 18).

##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왜 계속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왜 계속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 13:26-27)

##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창세전에) 아신(사랑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롬 5:6, 8, 10; 8:29, 30; 참고: 엡 1:4).

##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1)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기를 아하수어로 왕께 구하고자 왔는데 아하수어로 왕은 모르드개를 존귀하게 하려고 왕궁 바깥뜰에 있었던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물었으니 말입니다 (에 6:1-7).

##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2)

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하만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어로 왕은 그 하만에게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므로 하만 자기를 매우 노하게 만든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를 존귀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에 3:2, 5; 6-10).

##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모태에서부터 붙들어주시사(시 71:6)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 누리게 하시사  
그/녀를 다시 살리시며 다시 건져(구원해) 주시므로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20, 21 절).

## 하나님의 택한 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택한 길을 가르치십니다(시 25:12, 14).

##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나의 구원의 확신!

사랑의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인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로마서 8 장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

##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십니다(왕상 10:9).

###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각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서 "무지"하므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시 53:1-4).

###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스라엘 왕은 병마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 장 16-17 절을 어기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으고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흔하게 했습니다(대하 1:14-15).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 형통과 창대케 되는 비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이요(창 39:2, 3, 21, 23)  
또한 심히 창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대하 1:1).

### 홀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형편을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 광야에서 주님께 우리의 낙심과 죽고 싶은 마음(심정)을  
간구로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 간에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왕상 19:1-8).

###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악인들 ...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시 28:3, 7).

## 환난은 ...

환난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을 우러러 보게 만들므로  
신들 중에 주님과 같으신 분 없음과 주님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 할 수밖에 없습니다(시 86:4, 7, 8, 10).

##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고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침묵을 깨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욘 7:6-11).

## 힘이 있는 "여호와와 소리"

힘이 있는 "여호와와 소리"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예배해야 합니다(시 29:1, 2, 4, 11).